



소명자로서의 나눔과 섬김

박남규(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담당, 「호스피스 아름다운 봉사자」 저자)

모 연구소 연구원이던 30대 초반의 부부가 4살, 2살 두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지난 8월이 끝나가던 날 깊은 새벽, 아내는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 지난 밤 연구가 잘 진행되지 못해 애대우던 남편이 좀 이상해서 흔들여 깨워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장마비가 왔고 35세의 그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소식을 듣고 사별관리를 하던 나는 31살의 그 부인을 만났다. 너무 애처로웠다. 아이들은 문밖에서 자기 집 가까이 누군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아! 아빠다!”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두 딸이 안방에서 뛰어 나왔다가 실망하며 “아빠 언제 와...?” 하며 풀 죽은 아이들을 볼 때가 가장 힘들다는 자매를 무슨 말로 위로 할 수 있으랴.

자매의 상실감 회복을 위해 사별관리로 만났을 때 둘째 아이가 자꾸만 토하는데 동네 병원에서서는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예민해져서 체하는 것이라고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몇 날 후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했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대학병원으로 가서 확인했을 때 아이의 숨결을 누르고 있는 종양을 확인하게 되었다. 너무 급하다고 속히 수술을 해야 했기에 S대 어린이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여 그 날 수술을 했다.

아이를 만나러 중환자실을 찾아갔다. 병실의 침대가 크게 보일만큼 너무도 조그만 아이. 머리에는 그물망 모자를 쓰고, 수도 헤아리기 힘들만큼 가느다란 호스를 달고 있는 혼수상태의 아이, 며칠 후 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찾아가 가만히 아이 팔에 손을 대니 갑자기 자지러지게 놀라며 울어 버리는 아이였다. 하도 병원에서 주사를 많이 맞아 누군가 손만 대도 놀라서 운다며 수술은 잘 되었다지만 너무 어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걱정이라는 엄마의 애타

는 마음에 그냥 함께 가만히 손만 잡아 줄 뿐이다.

호스피스 사역 16년을 통해 수없이 많은 아픔도 보았지만 이 아이나 엄마 같은 아픔을 헤쳐 나가기가 마음에 쉽지가 않다. 가끔은 마음의 짐이 너무 커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부를 뿐이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31살의 젊은 엄마에게 산재라도 신청해보려 했더니 회사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다며 우선은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안타까운 시간의 한달이 지나갔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 속으로 통곡하는 아이 엄마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의 종양이 다시 예전처럼 자라서 위험하다고 하니...” 아이가 계속해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자 엄마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병원에 있다 해서 찾아가 보니 아이 엄마는 눈물도 말라버렸다고 망연자실 아이를 안고 있는 팔에서 아이를 떨어뜨릴 것 같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정답이 없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랴. 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가정에 소망을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섬김을 계속해야 한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부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되기 위해 우리의 복음은 말에만 있지 않고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곧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도구로서 소명자들이 되자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섬기자고 재촉한다.